



어린 양의 진노

© 2009 년 1 월 4 일 아세르 인트레이터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리는 예수아의 초림으로부터 멀어지고 재림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 속에, 우리는 복음서로부터 만이 아닌 계시록의 묘사를 통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더욱 받고 예수아께서 누구신지에 대해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 계시록 19:11-14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고운 모시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선 예수아를 군대 장관, 곧 주님의 군대의 최고 장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고 경배했던 군대 장관과 동일 인물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5:13).

그 분 눈 속에 있는 불은 화 때문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전쟁을 일으키고, 심판하며 벌을 주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쏟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진노는 벌과 화의 결합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린 양의 진노”라 부릅니다.

요한 계시록 6:16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예수아를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온순하며,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노와 반대되는 성질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죄악은 너무나 악하여, 사상 가장 부드럽고 온유했던 분까지 격노케 했습니다. 어린 양께서 진노를 품으신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부분들 중 하나가 이사야 13장~34장, 예레미야 46장~51장, 에스겔 25장~32장과 같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긴 예언들입니다. 그것들은 소선지서로 이어져 “온 열방이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올 것이다 (슥 12:9, 14:2)”라는 말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렇게 긴 분량의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열국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 그들을 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중동 전쟁에 대한 예언들이 마지막 때에 관한 신약의 말씀을 이해하는 배경이 됩니다. 올리브 산에서 하신 예수아의 예언 (마 24, 막 13, 눅 21)이나 계시록의 진노에 대한 구절이나 모두 말입니다.

[지난 주 캔자스의 IHOP 에서는 일주일 내내 요한 계시록에 대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가자 전쟁의 시작과 함께 동시에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지요. 저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믿는 남은 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받는 세계의 교회들과 국제적 지하드에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 나라 사이의 다리이자 연결 고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은 두 종류의 “금 대접”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장로들의 손에 있던 “향이 가득히 담긴” 것으로, “곧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계 5:8). 두 번째는 천사들의 손에 있던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계 15:7). 둘 사이엔 연관성이 있습니다. 기도는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더 많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더 많이 행해집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접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채우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의 사건들이 바로 우리 목전에 성취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아에 대한 더 큰 계시와 중동 전쟁들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어찌 이어질 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습니다.

지붕 두드리기

이스라엘 언론과 이스라엘 정치인들의 성명서엔, 이번 전쟁이 가자에 대한 것도 아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것도 아닌, 대 하마스 전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테러 조직으로, 이스라엘의 완벽한 파괴를 공공연한 목표로 부르짖는 이들입니다. 자신들이 이란을 포함한 전세계 급진적 무슬림들의 지지를 받으며, 국제 지하드의 선봉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번 주 하마스의 “군사” 지도자 중 하나인 니자르 리안 Nizar Rian 이, 그의 집에 감행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외에 14 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 넷이 그의 아내였습니다.

이 공습은 주의 깊은 정보 수집의 결과였습니다. 리안의 위치가 잡혔을 때, 이스라엘 군과 정부 법률 고문들은 제네바 협정에 부합하는지를 법관들에게 확증 받는 뼈를 깎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공습 15분 전, 이스라엘 군은 전화를 걸어 사람들에게 피신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전화를 받고 사람들을 모아 인간 방패가 되기 위해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헬리콥터 조종사는 그들을 봤고, 해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경고 차원에서 집 옆에 위치한 밭에 미사일을 발포했습니다. 그들은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사력이 없는 무기를 쏘아서 그들로 도망치게 했습니다. 그들이 지붕을 떠난 후에야, 그는 발포하여 집을 부숩버렸습니다.

미사일에 맞자, 그 집엔 연쇄적인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예측했던 것과 같이 집이 무기고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격이 임하기 전 민간인들에게 알리는 정책을 이스라엘 군은 “지붕 두드리기”라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을 두드리듯 말이죠.

계시록 16:10-11 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집승의 왕좌” 위에 쏟아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먼저 사람들이 아닌, 악한 세력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런데도 악의 세력들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맞는 것입니다. 11 절은 사람들이 악행을 회개하지 않고, 그저 고통을 인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랍인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무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우리 죄를 회개하며 마귀의 일들로부터 떨어져, 마귀가 받을 심판에 참여하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축원합니다!